

미국 · 중국회사 인수, 활성화 전망 국내 원창인쇄기계(주)서 계속공급

미 국과 중국회사가 일본 인쇄기제조업체의 영업권을 매입, 사업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 종합전기메이커인 상하이전기그룹(SEC)과 투자회사인 모닝사이드(MS)는 최근 민사채생법 적용을 신청한 아끼야마인쇄기제조회사의 영업권을 매입하고, SEC와 MS는 올 1월말 이바라기현에 있는 이 회사의 공장과 생산설비, 지적소유권 등을 승계한 새 회사 아끼야마 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

SEC와 MS는 합작으로 중국 국내에 인쇄 관련기기 메이커를 보유하고 있어 종이를 뒤집지 않고도 양면 원색인쇄를 할 수 있는 JPrint 양면인쇄기를 생산, 판매하는 아끼야마에 대한 투자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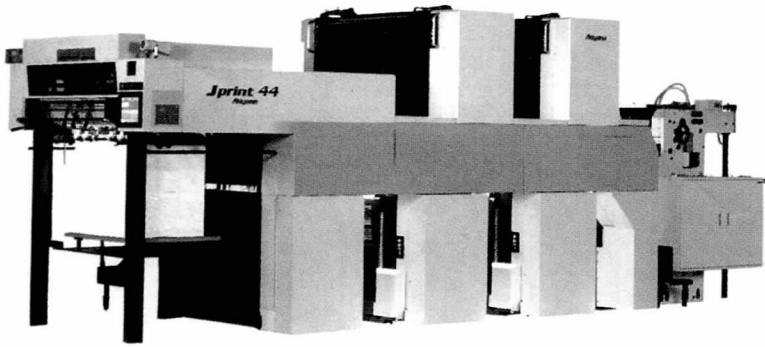


김병찬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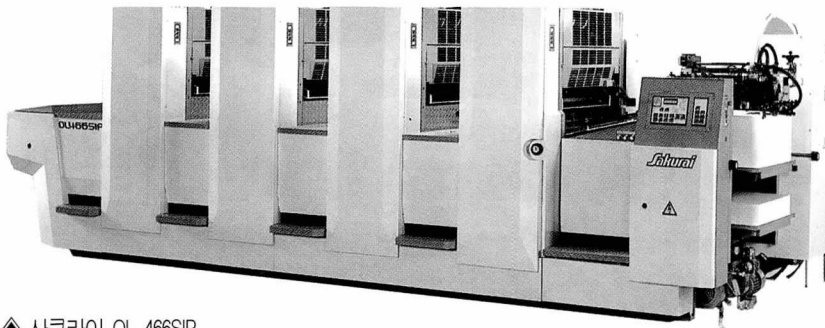
MS측은 영업권 매수금액은 '비밀유지 계약 때문에 공표할 수 없다'면서도 "새 회사의 자본금과 설비개수 등에 2천5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진대웅 SEC상무부 부부장은 "일본에

는 가장 우수한 인재와 생산설비가 있다"면서 "최신 기종을 계속 개발해 세계시장에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끼야마 한국총대리점인 원창인쇄기계(주)의 김병찬사장은 "이번 아끼야마의 해외매각으로 인한 한국시장의 영업에는 변함이 없으며 원창인쇄기계(주)가 그대로 총대리점을 유지하고 AS도 더욱 보강하여 국내 최고의 AS팀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하고 "아끼야마의 노부하라 부사장이 이미 금년초 한국을 방문하여 전통적인 아끼야마 - 원창간의 협력 관계를 다시한번 확고히 하였으며, 앞으로 아



◆ 아끼야마 JPRINT 2P244



◆ 사쿠라이 OL 466SIP

끼야마의 신기종 개발 및 국내시장 활성화 방
안에 관하여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내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지난 7월
아끼야마 기술진과 원창 기술진에 의하여 아
끼야마 기종 사용회사에 대한 인쇄기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최근에는
서울 성수동 소재의 삼덕정판사(대표 양의호)
에 신형 4×6 전지 양면 4색(2/2)인쇄기
JPrint2P244 및 대국전 양면 4색(2/2) 인쇄
기 JPrint 2P240 2대를 납입, 완료하여 본격
적인 영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아끼야마는 주력기종인 양면 8색도 인쇄기
계의 성능을 더욱 보강하여 New Jprint를 생

산하고 있으며 2003년 중반에 인쇄속도
18000(매/시)의 편면인쇄기를 선보일 것으
로 알려졌다.

한편 원창인쇄기계(주)는 아끼야마 국내
총대리점과 함께 사쿠라이 인쇄기 국내 총 대
리점 계약을 맺고 국내 공급에 나서고 있으
며, 사쿠라이사에서 최근 새로 개발된 신형
OL466SIP 전자동 국반절 4색인쇄기를 서울
소재 삼우인쇄사 (대표 유경조)에 납품을 완
료 했는데 이 기종은 동급 기계중 최고의 성
능으로 평가되고있다. 사쿠라이사는 국반절,
T3절인쇄기 및 넘버링 추쇄장치를 장착한 인
쇄기종을 생산하고 있다. <유>